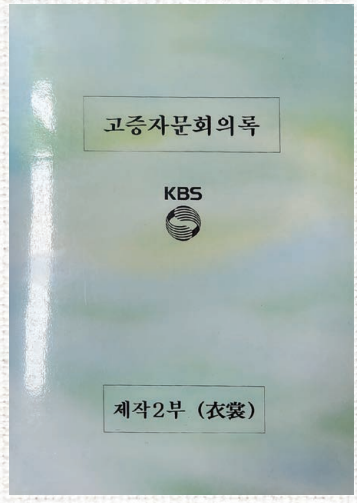
02 고려거란전쟁 제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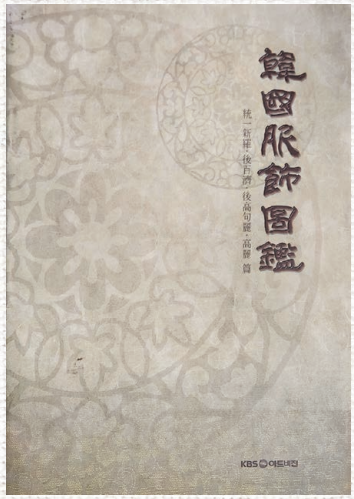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의상 제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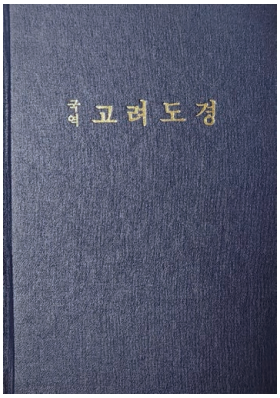
이석근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의상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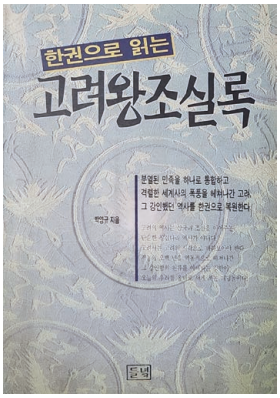
저희 KBS 아트비전 의상실에서는 1990년대부터 각 대학 의상학 박사님들과 사학 박사님들을 모시고 복식고증 자문회의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거쳐 회의록 및 책자를 만들어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또한, KBS의 간판 대하사극으로서 국내에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고려도경 그리고, 중국 자료 등의 문서자료와 불화, 벽화 등의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복식고증자문위원님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의상 제작을 하므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캐릭터 개개인의 스타일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시하였으며, KBS 대하드라마의 무게감과 한국의 색을 가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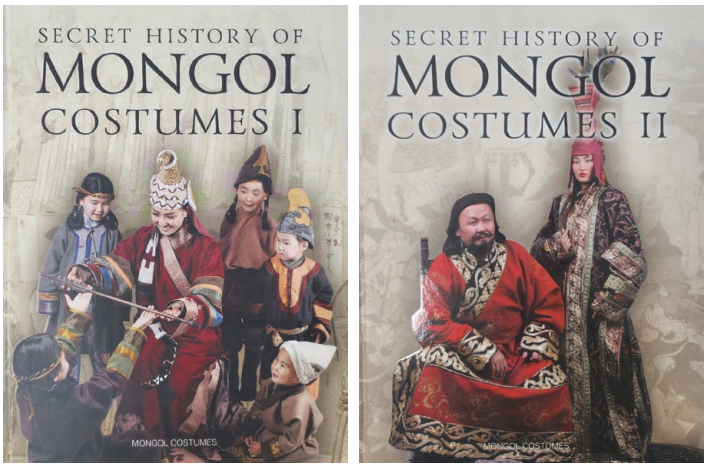
거란 복식의 경우 고증 자문을 받을 곳이 없어서 몽골 대학교수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몽골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John KO(고성훈)와 프로듀서 가르트가 몽골의 고고학 등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다며 지인인 몽골 관광청 바트치맥 국장의 주선으로 울란바토르시 행정부시장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울란바토르 행정부시장과 만남

울란바토르 행정부시장과 관광청 직원들과의 기념촬영

부시장께서 시에서 운영하는 몽골 과학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고고학연구소에서 거란족을 연구하고 계시는 간볼트 박사님과 잉흐투루 박사님께 거란 복식에 대한 고증 자문과 자료들을 받아 제작하는 등 복식의 역사적 고증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간볼트 박사님, 잉흐투루 박사님과 고증 자문회의



몽골 역사 자료책자

국내에는 갑옷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 없으므로 기존에는 중국에서 갑옷제작을 해왔는데 한한령 등 수입 시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고려 장수 투구 및 거란 말가이(모자)·델(의상)·갑주(투구갑옷)·고탈(신발) 등 58종(1,000여 점)을 몽골 현지에서 제작, 직구매하여 수입 다변화와 재료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갑옷 디자인과 제작에 관한 협의

수입품목에 갑옷 등은 무기로 분류되어 있어서 수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김종구 주몽 한국대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김종구 주몽 한국대사님과 기념촬영

전쟁을 다룬 드라마 특성상 갑옷이 찢기고 그 사이로 화살이 박히는 등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송나라 사람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중군의 전신인 신호좌우친위군이 구문금포에 금화대모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이번 작품에서 최초로 제작하여 보여줬습니다.

양규 장군 전사 장면